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군인 치료 전문 대성산종합병원 방문(5/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군인 치료 전문병원인 대성산종합병원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성산종합병원은 장군님(김정일)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 세워진 군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기지"라며 "병원을 꾸려놓은 데(건설한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치료사업과 관리 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대성산종합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병원인 것만큼 당의 보건정책 관철에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라며 병원에서 필요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신실세' 마원춘 당부부장, 국방위 설계국장 겸임(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부부가 군인 전용 치료시설인 대성산종합병원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을 수행한 마원춘을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육군 중장"이라고 밝힘.

- **北 예술인대회 축하 모란봉악단 공연...김정은 관람(5/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9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석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 부부의 공연관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은,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 건설현장 시찰(5/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아파트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인 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 칭찬한 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인민군 제267부대 군인건



설자들의 일본새"라며 "모든 건설부문에서 이들의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조선총련 내에 영도체계 튼튼히 세워야"(5/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하루 앞둔 23일 재일동포들에게 '축하문'을 보내 '애국애족의 선각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하문에서 조선총련이 제22차 전체대회 이후 지난 4년간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 "조직 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기층조직을 더욱 강화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함.

● 제23차 北 김정은, 전기기계공장 방문...생산공정 현대화 지시(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천마전기기계공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공장의 터를 직접 잡아주고 공장을 여러 차례 찾았다고 소개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맡은 생산과제를 제때에 수행해왔다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최신식 전기기계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 주자면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라며 전기기계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통이 크게' 현대화하라고 지시함.

● 北 "黨 유일사상체계 확립 위해 사상적 일색화" 강조(5/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유일사상체계 관련 '노작' 발표일인 25일을 맞아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一色)화는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라고 거듭 강조함.
- 신문은 25일 사설에서 김일성 주석이 1967년 5월 25일 당 사상부문 간부들 앞에서 한 '당면한 당 선전사업 방향에 대하여'란 제목의 연설에 대해 "연설의 기본정신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해 당을 사회주의 위업을 향도하는 정치적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힘.



■ 김정은 동향

- 5/19,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대성산종합병원 시찰(5.19,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 마원춘(국방위원회 설계국장·육군 중장) 동행
- 5/20, 김정은·리설주, 5월 19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관람(5.20,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김여정 등 함께 공연 관람
- 5/21,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2개동 46층 건물) 건설장 시찰(5.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당중앙위 비서), 마원춘(국방위 설계국장 육군 중장) 동행
- 5/22,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일꾼-근로자들(김해신 등)에게 '감사' 전달(5.22, 중앙방송)
- 5/23, 김정은 黨 제1비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5.24~25)를 즈음하여 재일동포들에게 '축하문' 전달(5.23, 중앙통신·중앙방송)
- 5/25, 김정은 黨 제1비서, 천마전기기계공장 현지지도(5.25,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황병서, 장정남, 변인선, 윤동현, 박정천, 홍영철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의 백승의 원천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이라며 '黨 중앙총 2013년 3월 전원회의 기본정신(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후승리 이룩)'을 강조(5.21, 중앙통신)
- '김정일,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 방문' 60돌 기념 보고회들, 5월 22일 최룡해(당 비서)·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5.22, 중앙통신)

나. 경제

○ 북한, 나선특구 외자유치 지원기구 설립(5/19, 중국신문사)

- 북한이 자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나선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투자지원기구를 설립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9일 전함.
- 북한이 17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관광전시회에 나선특별시 대표단을 파견, 나선특구의 관광자원과 산업 현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배포자료를 통해 외자 유치를 위해 북한이 특별



히 '나선투자복무체'를 설립했고 이는 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돕는 기구라고 소개했다고 전함.

- "中 건설장비 제조업체, 北과 합작 추진"(5/19, 조선신보)
 - 중국의 국영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쉬저우 공정기계집단(XCMG)'이 북한 기업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20일 XCMG가 지난 12~15일 평양에서 열린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해 북한의 조선기계무역총회사와 '합작을 위한 실무적인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함.

- 중국 창춘-북한 평양 전세기 관광 7월 개시(5/19, 중국신문망)
 - 북한과 중국이 올 들어 관광 분야 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가운데 평양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오는 7월 초부터 운항한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9일 보도함.

- "이탈리아, 1년간 20만 유로 대북 인도 지원"(5/20,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년간 북한 임산부·신생아를 위해 약 20만유로(2억8천여만원)를 지원했다고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UNICEF)을 통해 북한 임산부·신생아에게 육아용품 등을 지원함.

- 北, 러시아 밀가루 수입 급증... "中 의존 낮추기"(5/20, 연합신문)
 - 최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부쩍 강화하는 북한이 중국에 절대 의존해온 식량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20일 중국의 수출입 통관검사를 담당하는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중 간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랴오닝성 단둥(丹東) 세관을 통해 올해 1~4월 북한으로 반입된 러시아산 밀가루는 총 2천 715t으로 집계되었으며, 이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밀가루 총량보다 41%가 많은 수치라고 전함.

- 스웨덴, 올해 대북 지원사업에 58억원 책정(5/21,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 정부가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570만 달러를 책정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508만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570만 달러(58억4천여만원)를 배정했으며, 이중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137만 달러로, 프



랑스 민간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함경남도 일부 지역의 식수 개선사업에 30만 달러, '프리미어 위장스'의 황해남도 의료시설 개선사업에 60만 달러 등이 지원되었다고 알림.

● **美 국무부, 북한 여행 주의보..."단체관광도 위험"(5/21, 미국의소리(VOA))**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으며, 여행사가 모집하는 단체여행에 합류하거나 관광안내인과 동행해도 여행 중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

● **북한 전문 외국여행사들 "관광 일정 예정대로 진행"(5/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관광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작년 북한 대외무역 73억 달러...역대 최대(5/22, 연합뉴스)**

- 22일 코트라가 발표한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7.8% 증가한 73억4천만 달러(7조5천억여원)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수출액은 11.7% 증가한 32억2천만 달러, 수입은 5.0% 늘어난 41억3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무역적자는 전년(10억5천만 달러)보다 다소 축소된 9억800만 달러였다고 보도함.

● **EU, 올해 대북사업에 95억원 지원 계획(5/22, 미국의소리(VOA))**

- 유럽연합(EU)이 올해 대북 사업에 총 675만 유로(약 95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함.
- 또한 675만 유로의 대북사업 지원예산과는 별도로 5월 현재 이미 32만 유로(약 4억5천만원)를 대북사업에 지원했다고 전함.

● **"대북지원 모금 늘리려면 분배투명성 강화해야"(5/22,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기구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에릭 와인가트너 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이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北, 지방경공업 발전 독려..."스스로 살림살이 해결"(5/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지방 공장의 모범 사례를 내세우며 지방 경공업 발전을 독려함.
 - 신문은 22일 함경북도 회령시, 강원도 원산시, 자강도 진천군 등 지방 경공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함.

- **"北관료, 특구회의서 中 쭈저우공업원구에 관심"(5/23, 자유아시아방송(RFA))**
 - 4월 북한에서 열린 경제특구 개발 학술회의에서 북한 관료들이 중국·싱가포르의 '쭈저우 공업 원구'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싱가포르 대북교류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를 인용해 23일 보도함.

- **중국,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항 개발 참여(5/23, 중국신문사)**
 - 나진항, 청진항 등 북한 동북 지역 항만을 통한 '동해 출구' 확보에 주력해온 중국이 러시아 극동 항만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고 23일 중국신문사가 보도함.
 -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은 최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러시아 최대 항만 운영기업인 슈마그룹과 연해주 하산구 자루비노항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함.

- **"中 투먼-北 남양 새 교량 착공 임박"(5/23, 연변일보)**
 - 중국 당국이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를 연결하는 새 국경 교량을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연변일보가 23일 보도함.
 - 이 교량은 투먼시 정부가 2010년 중앙과 지린성·옌볌(延邊)조선족 자치주 정부에 필요성을 보고한 뒤 조사, 기획 등 사전준비작업이 추진됐고 현재 부지 선정이 마무리돼 건설 인가를 받은 상태라고 신문은 전함.

- **北, 식량증산에 사활..."농업은 사회주의 최전방"(5/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제1제대 제1선 참호'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 당은 농업 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힘.
 - 정론은 "전선에서 제1제대라고 하면 작전 전투임무 수행의 최전방 전투 서열이며 그 가운데서도 제1선 참호는 적들과 가장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전투 진지"라며 "제1선 참호가 역척이면 전 전선이 철벽이고 제1제대가 불패이면 조국이 굳건하다"고 강조함.



- **프랑스 NGO, 北 양로원 노인에 식량지원(5/24, 미국의소리(VOA))**
 - 프랑스 민간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지난 3월부터 북한 양로원 노인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이 단체는 프랑스 외무부가 지원한 38만5천 유로(약 5억4천만 원)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북한 양로원 24곳의 노인 7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사업을 시행 중임.

- **北 경제사절단, 러시아-시리아 순방(5/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리룡남 무역상이 이끄는 '조선정부 경제대표단'이 러시아와 시리아를 잇달아 방문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함.
 - 리 무역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러시아 무역·경제·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하며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북한-시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함.

- **北, 중국산 디지털TV 수신기 수입 급증(5/25, 연합뉴스)**
 - 2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4월 북한에 LCD 디지털TV 수신기를 482만1천 달러(약 49억3천만 원) 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가운데 휘발유(1천257만 9천 달러), 디젤유(773만 달러)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올해 1~4월 중국에서 수입한 LCD 디지털TV 수신기는 모두 1천766만8천 달러(약 180억9천만 원) 어치로 작년 같은 기간 402만9천 달러(약 41억2천만 원)보다 338%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양강도에서 중소형발전소 건설(2년 남짓 기간 10여 개소 준공)과 국토관리사업(리명수혁명사적지 주변 25만8천 그루 식수 등) 성과 선전(5.18, 평양방송·중앙방송)
- 황해남도에서 신원시멘트공장과 해주은정맥주공장 조업 및 생산 돌입(5.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5월 20일 20수직갱 건설 준공식 진행(5.22, 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000톤 이상의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5.23, 중앙통신)



다. 사회·문화

- **北, 8월 평양서 국제프로레슬링 대회 개최(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올해 8월말 평양에서 국제프로레슬링 경기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라며 "대회에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이름난 프로레슬링 강자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밝힘.

- **北, 문학예술인 연일 독려..."세계적 명작 창작하자"(5/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문학예술인들의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실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현 시기 문학예술인들의 가장 절박한 과업이고 문학예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오래 활동한 창작가 예술인일수록 지난 경험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실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문책' 어떻게 될까(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고 소식을 전하며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 이들의 과실을 지적함.

- **국제적십자사 "北, 아파트 붕괴 구호요청 없어"(5/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발생한 평양시내 고층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직 국제적십자사(IFRC)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IFRC 측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난 13일 발생한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피해 복구나 구호 요청을 받은 바가 없으며 사고 발생 사실이냐 피해 규모도 아직 직접 듣지 못했지만 북한 당국이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北, 南 아파트 사고 위로통지문 보도(5/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20일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가 위로 전문을 보내왔다"고 전함.

- **남북합작 평양과기대 내일 첫 졸업식(5/20, 연합뉴스)**
 - 남북 간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평양과기대를 북한 당국과 공동 운영하는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관계자는 20일 "내일 평양에서 제1회 졸업식이 열린다"며 "정보



통신, 산업경영, 농업식품공학 등 3개 분야에서 44명이 석사 학위를 받고 올해 가을까지 학사 과정 150명도 졸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北, 창단 2년 모란봉악단 예술분야 '본보기'로 부각(5/19; 5/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사설에서 "역사가 오랜 예술단체들에 못지않은 모란봉악단의 명성은 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남다른 창작·창조 기풍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모란봉악단을 치켜세움.
 - 20일에는 1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날 제9차 '전국 예술인대회' 참석자를 위한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이 악단 배우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격려하는 사진이 크게 실림.

- **北 '지식경제강국' 추진 핵심은 첨단기술개발구(5/21, 연합뉴스; 경제연구)**
 -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4월 30일 발행)에 실린 '첨단 기술개발구 창설은 지식경제시대의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첨단기술개발구를 본보기로 해 첨단산업을 창설하고 경제 전반을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구상이며 지식경제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논문은 "첨단기술개발구는 첨단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돼 연구-개발-생산-수출이 일체화된 지역적 거점"이라며 "지식과 기술, 인재가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되는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형의 지역으로 기술과 정보가 밀집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함.

- **북한 북부 지방에 최대 직경 4cm 우박(5/21, 조선중앙TV)**
 - 북한 북부 지방에서 21일 직경이 최대 4cm에 달하는 우박이 쏟아졌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중앙TV는 이날 북한 대부분 지역이 맑았지만, 북부 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다고 자강도 만포시에서는 직경 4cm의 우박이 내렸다고 전함.

- **"평양과기대, 北 최초 4년제 간호학과 개설"(5/23, 미국의소리(VOA))**
 - 남북 간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4년제 간호학 과정을 개설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평양과기대가 설립할 계획인 의과대학은 의학, 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간호학과는 4년제 학부 과정, 나머지 4개 학과는 3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된다고 VOA가 전함.

- **北 과학연구소 건설 붐..."지식기반 경제회생 노력"(5/25, 노동신문)**
 - 북한이 평양 은정과학지구의 위성과학자거리에 각각 1만4천여㎡, 8천여㎡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과학부문 연구소와 자연에너지 연구소를 건설 중이라고 25일 노동신문이 보도함.



- **"북한 아파트 붕괴 관련 기술자 4명 총살"(5/25, 도쿄신문)**
 - 북한 인민군 간부와 기술자 등 최소 5명이 평양 고층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숙청됐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인민군 7총국장은 해임과 동시에 강제수용소행 처분을 받았고,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기술자 4명은 총살됐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전국예술인대회는 주체문학예술발전사에 특기할 창작가·예술인들의 대회합'이라며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지도일꾼들과 창작가·예술인들은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5.19,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리충일 선수, 국제권투 경기대회(러시아 하바롭스크) 남자 52kg급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5.20,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중앙·지방의 설계부문 일꾼들, 5월21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참관 및 현장에서 '건축미학토론회(오수용 黨 비서·김용진 내각 부총리 등 참가)' 진행(5.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출품 "미안비누(삼건무역회사)·미래(모향화장품공장)" 등 '미안제품·화장품들의 피부작용효과' 등 소개 선전(5.24, 중앙통신)

2. 대외관계

가. 일반

- **日 "26~28일 북한과 국장급 회담 개최"(5/19, 연합신문; 교도통신)**
 - 북한과 일본이 오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외무성 국장간 회담을 개최한다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번 협의의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될 전망이며, 일본은 자국민 납북 피해자 안부에 대한 재조사 실시 합의 등을 목표로 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北 노동신문 "日경찰 조선총련 강제수색은 정치테러"(5/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총련 말살을 노린 비열한 정치 테러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경찰이 지난 12일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수입했



다는 이유로 조선총련 관련 건물 20개소를 강제 수색했다며 "이는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적 테러행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우리는 일본의 비열한 정치적 탄압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함.

- **北 노동당, 몽골 인민당과 상호협력 합의(5/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몽골 인민당이 20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20일 "조선노동당과 몽골 인민당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전함.
- **"26~28일 북일 협상에 국가안전보위부 인사 참석"(5/22,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이 오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북한-일본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 국가안전보위부 인사를 참석시킬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함.
 -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1월 이후 본격화한 북한과 일본의 비공식 협의에서 국가안전보위부 당국자가 일본과의 창구 기능을 했다면서 그동안 이어진 북일 협의를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도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함.
- **WFP 사무총장 "北변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5/22,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한 직후 방한한 어서린 커즌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22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북시 북한 지도부의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들(북한)은 우리가 한 모든 제안을 신중히 숙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기부국들로 하여금 추가(대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北,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공식 발표(5/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23일 공식 발표함.
 - 통신은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평화와 단합, 친선을 이념으로 하는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조선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北, 앙골라와 수자원개발 협력 강화 합의(5/23, 아젠시아 앙골라 프레스)**
 - 북한이 앙골라와 수자원 개발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앙골라 언론 '아젠시아 앙골라 프레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 중인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은 23일 앙골라 루안다에서 루이스 필리페 다 실바 앙골라 에너지·수자원 장관과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양측이 "향후 추가 접촉을 통해 협력 분야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댐과 수처리 시설 건설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함.

● **北 신문 "조선총련, 북일관계 개선에 기여해야"(5/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전체회의가 열리는 24일 1면 사설에서 "총련은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조국 인민들의 전진에 발걸음을 맞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앞당기는 데 특색 있게 이바지하며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두터이 해 조일(북일)관계 개선과 자기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또 "새 세대들과의 사업을 잘하고 그들을 애국활동의 주역으로 적극 내세워주며 새 세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야 한다"면서 총련 조직을 확대하는 '동포되찾기 운동'을 강화하고 기층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리수용 외무상 첫 외유...중동·아프리카 순방(5/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리 외무상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떠났다고 보도함.

- 통신은 리 외무상이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개최되는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지만, 그가 방문하는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북한·일본, 내일 스웨덴서 정부 간 공식 협의 재개(5/25,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26일부터 3일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정부간 공식 협상을 재개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협상에는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고 뉴스는 전함.

● **교황 집전할 8월 명동성당 평화미사에 北천주교 초청(5/25, 연합뉴스)**

- 25일 천주교에 따르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지난 18~19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조선천주교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8월 18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기타 (대외 일반)

- 리수용 외무상, 5월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스페인 외무 및 협조성 대표단과 담화(5.19, 중앙통신)
-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어써린 카즌)과 일행, 5월 19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 父상 동상 참배(5.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미국이 '프랑스-베트남전쟁' 시기 핵공격을 제안했던 사실을 영국 BBC방송이 보도 한 것 관련 '미국이야말로 인류를 향시적인 핵공포 속에 몰아넣는 핵위협의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이라고 비난(5.19, 중앙통신)
- 美 국방성 산하 방위정보국 보고서(北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관련 '미국이 우리(北)의 그 무슨 위협을 떠들며 핵전쟁도발책동에 박차를 가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5.1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김영남, 5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어써린 카즌)과 담화(5.20,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5월 20일 주북 쿠바 대사 및 몽골 대사와 각각 담화(5.20, 중앙통신)
- 美 행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핵무기 개량 및 현대화를 위해 '77억 8,000만 US\$'의 예산 배정(2014년 대비 11.6% 증가) 한 것을 거론하며 '현 美 행정부의 세계제패 야망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5.20, 중앙통신·민주조선)
- 차드 수상(칼제베 빠히미), 5월 15일 주차드 北 대사 '정영철'과 담화(5.21, 중앙통신)
- '미국의 反北정책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며 "우리(北)는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으로 미제와 대결할 것이며, 미국을 파멸어로 몰아넣는 일대 결사항전을 벌릴 것"이라고 호언(5.21,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추진 방침(5.15, 총리 기자회견 등)'에 "흉악한 야망, 유엔헌장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의 견지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연일 비난(5.21, 평양방송)
- 리수용(외무상), 5월 21일 駐北 시리아 대사(타맘 술레이만) 면담(5.21, 중앙통신)
- 駐차드 北대사 정영철, 5월 15일 차드 구국애국운동 총비서 면담(5.22, 중앙방송·평양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24일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시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수 십명이 숨진 데 대해 중국 정부에 위로 전문(5.24, 중앙통신)



- 조선총련 24일부터 이틀간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제23차 전체대회 개최(5.25,조선신보)
- 日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겠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자살적 망동"이라며 '일본을 과거처럼 침략을 하는 나라,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5.23,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이 세계 각국의 통신 및 컴퓨터망에 예산을 지출 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 인터넷을 세계제패 야망실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목표국가들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정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5.23,중앙통신 논평)

나. 6자회담(북핵)

- **北 신문, 핵보유 정당성 강조..."美가 떠밀어 핵개발"(5/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미국 때문에 핵개발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4건이나 게재하면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함.
 - 신문은 19일 '핵보유국으로 누가 떠밀었는가'는 글에서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6·25전쟁 때부터 핵위협을 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 등의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핵위협 소동이 우리나라를 핵보유국으로 떠밀었다"고 주장함.
- **北리용호 6자수석 방중...북중채널 접촉 가능성(5/20, 연합뉴스; 교도통신)**
 -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0일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리 부상이 몽골에 가는 길이며 방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朴대통령 세월호 대국민 담화 비난..."민심 우롱"(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민심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조평통 서기국은 19일 발표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 진상고발장'에서 "박근혜와 그 패당이 '대국민담화'요 뭐요 하며 눈물까지 쥐어짜면



서 민심과 여론을 우롱하는 노숙(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부려도 반인륜적 대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北 '세월호 추모' 6·15공동행사 제안...정부 "불허"(5/21, 연합뉴스)**
 - 6·15민족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최근 6·15 남측위와 해외측위에 6월 15일 개성에서 6·15 민족공동행사를 열고 세월호 침몰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공동 추모행사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위의 제안에 대해 통일부는 실무 접촉도 어렵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北, 지방선거 앞두고 연일 '정권심판' 선동(5/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반역패당에게 두 번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등을 '기만놀음'으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의 선거공약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전함.
 - 신문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약들이 "세월호 침몰 대참사를 빚어낸 저들의 용납 못할 죄악을 가리고 선거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일 뿐"이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역패당의 민심기만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반(反) 박근혜, 반 새누리당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림으로써 최악의 위기에서 헤어나려고 발악하는 자들에게 참패를 안겨야 할 것"이라고 선동함.
- **北, 南海군 서해 함포사격에 "군사적 타격" 위협(5/21,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는 21일 '공개 보도'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침예한 서남전선 열점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 작은 괴뢰해군 함정들은 예외 없이 우리 서남전선군 사령부 관하 모든 타격수단들의 직접적인 조준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방송은 "남조선 괴뢰 해군은 우리 측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아군 함선과 평화적인 중국 어선들에 무작정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아군의 해상경비계선과 서해 5개 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도발도 포착되는 즉시 경고 없는 군사적 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간첩조작사건' 재심 무죄 거론하며 南 정부 비난(5/2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처형된 경제학자 고(故) 권재혁 씨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일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조평통은 22일 '서기국 보도'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과



거 파쇼 도당이 조작한 간첩사건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 증거"라고 주장함.

- **北, 연평도 우리 초계함정 인근에 2발 포격(5/22, 연합뉴스)**
 - 북한군이 22일 오후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유도탄 고속함 인근에 2발의 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의 한 관계자는 22일 "오늘 오후 6시께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측 해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적 포탄 2발이 떨어졌다"며 "우리 군도 적 함정 인근에 즉각 수발의 대응사격을 했고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고 밝힘.

- **북한군 "포격설은 날조...南 함정이 선불질"(5/23, 연합뉴스)**
 - 북한군은 23일 전날 우리 해군 초계함에 대한 포격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남측에서 '선불질'(서투른 총질)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3일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보도'에서 "(남측에서) 5월 22일 오후에 우리가 연평도 근해에 있는 제놈들의 함정에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제놈들이 대응사격을 가한 것처럼 없는 사실을 꾸며대며 떠들어대고 있다"고 밝힘.

- **北매체, 노 前 대통령 "자살 아닌 정치적 타살" 주장(5/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조국통일연구원 김승혁이 기고한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며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 타살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은 오직 남조선과 같은 최악의 정치 후진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힘.
 -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정의를 지향하다가 불우하게 생을 마쳤다"라며 이에 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큰 저택에서 골프와 바둑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北 "南, 선거 前 '북풍'조작 책동...간과하지 않을 것"(5/23,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박근혜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조작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최근 세월호 참사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보수패당이 '북풍' 조작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라며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 현 위



기를 모면하며 보수세력을 규합해 지방선거 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 특히 "군부 강패 불한당들은 서해 5개 섬 수역에서 매일과 같이 총포 실탄 사격훈련을 벌여놓던 끝에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우리 해군 함선과 중국 어선을 향해 총포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함.

● 6·15남측위 "통일대박론 발목잡는 5·24조치 해제해야"(5/24,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 4주년을 맞은 24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스스로 발을 묶어놓고 정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드레스덴 구상'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려면 5·24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이어 북한이 23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결주의 정책의 상징으로 그 시효가 이미 끝난 5·24 조치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타 (대남 정치·군사)

- 통일대박론 관련 '남북관계의 파국을 노린 극악한 반통일대결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이라며 '뒤집어놓은 전쟁 대박론, 침략대박'이라고 지속 비난(5.19,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근 집회와 시위들에서의 '박OO정권 퇴진' 등 주장 관련 '박OO정권이야말로 재앙거리 정권, 다시는 박OO패당과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을 믿어서는 안 되며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6·4지방선거에 개입하여 '박OO정권 퇴진과 반새누리당 투쟁' 선동(5.22,평양방송)
- 세월호 참사 관련 '씩고 병든 남조선 사회의 집중적 반영인 동시에 박OO패당의 총체적 무능과 반인민적 정치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폭로'라며 '민심을 등진 자들은 인민의 버림을 받기 마련'이라고 연일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5.22,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5.23)우리 정부의 '北 핵실험 임박설', '北 없어야 할 나라' 발언 등을 언급하며 "'북풍' 조작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책동은 세월호 참사로 격앙된 민심의 분노와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 6.4지방선거 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데 있다'고 주장(5.23,중앙통신·중앙방송)



- 새누리당 후보들의 6·4지방선거 공약들에 대해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박OO 패당이 저지른 반역행위에 대한 성토장, 심판장으로 전변시키고 반역패당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겨야 한다'고 선동(5.23,평양방송)
-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담화(5.19)에 대해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우며 격앙된 민심을 가리기 위한 한갓 기만극"이라며 '6·4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 지속 선동(5.24,중앙통신·노동신문)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드레스덴 선언 후 南 인도적 지원품 잇달아 거부(5/21, 연합신문)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정부가 반출을 승인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21일 연합신문이 전함.
- 21일 통일부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에 따르면 한 대북지원단체는 4월 초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고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려 했지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거부 입장을 통보해 아직 준비한 물품을 보내지 못하고 있고, 민화협이 보낸 서신에서 "지원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라며 "사전협의 없이 보내는 물품은 받지 않겠다"고 밝힘.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서해 미사일기지 추정시설 건설 가속도<38노스>(5/20, 연합뉴스)**
 -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0일(현지시간), 지난 10일자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새 미사일 발사 설비일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을 빠른 속도로 짓고 있다고 전했다.
 - 38노스는 이곳에 미사일 조립공장을 잇는 1km의 콘크리트길이 생긴 것을 확인했고, 건설현장 아래쪽에 지름 18m의 둥근 건물은 레이더 혹은 실험 관측시설로 보이는 등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일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북한은 2012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쓴 발사대를 더 큰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확장·개량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다며, 이는 새 발사시설 건설 때문일 수 있다고 봤음.

- **헤커 "北핵폭탄 10개로 간주해야...HEU폭탄도 4개 추정"(5/23, 연합뉴스)**
 -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지난달 미국 비확산센터(CNS) 주최 '북핵 10년의 회고' 세미나에서 "북한은 현재 약 10개의 핵폭탄과 4개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을 했다고 소식통들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 또한 "북한은 매년 1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프리 루이스 CNS 소장은 이날 "헤커 박사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말하며 "미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국지도발시 반격으로 전면전 상황 원하지 않아(5/20, 연합뉴스)**
 -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 소식통들에 따르면 마이크 맥더빗 전 미 해군 소장이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국지 도발할 경우 이를 반격해 전면전이 초래되는 긴장 고조를 원치 않아 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맷더빗 전 소장은 지난달 비밀해제된 국방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미국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시 원점 타격하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t) 전략을 수립하자 이를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라 설명했다.
-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의 발주에 따라 작성된 '중국: 세 개의 전쟁(심리전·법률전·여론전)'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는 지난 4월초 비밀해제 됐으며 동북아 정세와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음.

● 美·北 몽골서 '트랙2' 접촉<외교소식통>(5/21, 연합뉴스)

-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몽골에서 '트랙 2'(민간채널) 접촉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 당국자가 참여하지 않는 민간차원의 접촉으로서, 현 국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나 최근 4차 핵실험을 거론하며 도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신호인지의 여부가 주목됨.
- 앞서 지난해 9월 말 독일 베를린에서 리용호 부상과 스티븐 보즈워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 위트 교수가 참석해 비공식 세미나를 가진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북한, 나선특구 외자유치 지원기구 설립(5/19,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7일,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열린 관광전시회에 나선특별시 대표단을 파견해 관광자원과 산업 현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자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나선특구 활성화를 위해 전문 투자지원기구를 설립했다고 관영 중국신문사가 19일 전했다.
- 중북이 공동 개발 중인 나선특구는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측 투자가 지지부진해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장성택 처형 당시 '나선특구 혈값 임대'를 죄목에 포함하면서 중국 내 대북 투자 분위기가 더 냉각됐음.
- 중국 당국은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자국 생산 전력의 나선특구 송전 설비와 나선특구로 가는 관문인 지린성 훈춘(琿春)의 두만강 새 교량 착공도 계속 미루고 있어 양국 관계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대북경협 속도를 조절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26~28일 일·북 협상에 국가안전보위부 인사 참석(5/22, 연합뉴스)
 - 니혼케이자이신문은 22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일·북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인사를 참석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음.
 - 신문은 올해 1월 이후 본격화한 일·북 비공식 협의에서 국가안전보위부 당국자가 일본과의 창구 기능을 하며 주도를 해왔고, 이번 협의에 국가안전보위부 인사를 출석시키겠다는 북한의 의사는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했음.
 - 이에 일본은 이번 협의에 외무성 당국자뿐 아니라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해온 내각관방 등의 담당자를 동행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의 안부 조사에 응하면 대북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할 예정임.

마. 러·북 관계

- 北, 러시아 밀가루 수입 급증... "中 의존 낮추기"(5/20, 연합뉴스)
 - 20일 중국의 수출입 통관검사를 담당하는 국가질검총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북한으로 반입된 러시아산 밀가루는 총 2천715t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밀가루 총량보다 41% 많은 수치임.
 - 반면 올해 1~4월 북한이 단둥 세관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가 감소해 최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부쩍 강화하는 북한이 중국에 절대 의존해온 식량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됨.
 -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외경제에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한 것이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

바. 기타

- 인도네시아, 아태 지역 핵실험 금지 촉구(5/21,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2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태평양-극동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 간 신뢰 증진을 통해 핵실험 금지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음.
 - 마르티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갈등과 긴장에 따른 국가간 신뢰 부족이 핵실험 금지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지역 모든 국가가 CTBT를 비준하는 것은 기술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 말했다.

- 현재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중국은 CTBT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CTBT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도 CTBT를 비준하지 않고 있음.

● **WFP 사무총장 "北변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5/22, 연합뉴스)**

- 지난 19~21일 북한을 방문한 직후 방한한 어서린 커즌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22일, "북한은 우리가 한 모든 제안을 신중히 숙고했다"면서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WFP는 2015년 6월 말까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240만 명에게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커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고 있으며 지원이 없을 경우 활동 역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커즌 사무총장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와 북한의 최근 식량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 **한-EU 외교장관회담...北도발 억지 협력 강화"(5/23,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 서울에서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억지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 윤 장관은 "특히 어제 NLL 이남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도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고 "EU 측이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 EU의 외교수장인 애슈턴 고위대표는 자연재해와 해적퇴치 그리고 분쟁지역 평화유지 활동 등의 위기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EU 위기관리 활동 기본참여 협정' 서명 등을 위해 이날 방한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정부, 한미 원자력협상 '소규모 협의' 집중추진(5/19,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 올해가 사실상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시한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 협상과는 별개



로 수석대표간(일대일) 협의 및 (수석대표를 포함한) 소규모 협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 협상 시한과 한미간 입장차를 감안할 때 '우리농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제 비확산 체제, 양국의 비확산 정책, 원자력 및 산업계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좋은 해결 방안에 대해 타진하는 상황"이라 답했음.
- 또한 우리농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 개정의 협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원자력 발전) 수준으로서 골드 스탠더드를 받을 수는 없다"고 거듭 밝히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적절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왕이 中외교부장 26~27일 방한...정상회담·북핵 협의(5/19, 연합뉴스)

- 외교부는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27일까지 공식 방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문제 등 한중 양자관계 및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작년 4월 우리 외교부 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자 양국 정상인 작년 6월 발표한 '미래비전 공동성명' 중 외교장관 간 상호 교환방문 정례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한중 간 전략적 소통 및 협력관계 심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양국 장관은 그동안 3차례의 회담 및 4차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수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일정과 의제 문제 조율, 북핵 불용 원칙의 재확인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반대 의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 한일 관계

● 국방부 "우리 요청 없이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5/19, 연합뉴스)

- 국방부는 19일, 일본인 납북자와 관련해서는 영역국의 동의 없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 거듭 강조했다.
- 특히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라고 말해 자위대의 북한 영토 및 영해 진입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앞서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의 일본인



남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날 보도한 바 있음.

● **한일 북미국장 도쿄서 회동...집단지위권 논의 주목(5/22, 연합뉴스)**

-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은 22일 오후 도쿄에서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외무성 북미국장과 만나 양국의 대미 정책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달 있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 성과를 평가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 한일 북미국장 회의는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합의돼 2007년 5월 최초로 개최됐으며, 아베 일본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외교 당국간 실무교류에 차질이 생긴 이후 양국 외교당국간 북미국장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북미국장 회의는 한일이 지난달 16일과 이달 15일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한 외교부 국장간 협의에 이어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조기에 복원하려는 미국의 의지와도 무관치 않아 보임.

● **日민간기관 "軍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 영문 홍보(5/23, 연합뉴스)**

-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인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4쪽 분량의 '위안부 문제 (Then Comfort Women Issue)' 소책자를 영문과 일본어로 각각 발간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 책자는 서두에서 전쟁 중 다수의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이 군 위안부가 돼 결과적으로 고통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지면을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부정하는데 할애했음.
-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 보상은 완전히 해결됐고, 1993년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河野) 담화가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했음.

라. 미·중 관계

● **美, 中장교 5명 해킹혐의 기소...中, 美대사 불려 항의(5/20, 연합뉴스)**

-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민해방군 소속 현역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해킹 혐의로 외국 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러나 피고인들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며, 미국 정부가 피고인들의 신병 확



보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한 것은 중국의 해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미 법무부의 기소에 강력 항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으며,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킹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양국의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 **중국-러시아 손잡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에 맞붙(5/21,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아시아의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맞불을 놓은 것임.
-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을 역(逆)으로 견제하면서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의 공동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라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안보에 대한 회원국 간의 견해차가 뚜렷한 데다 아시아 각국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이런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보임.

● **해킹에 이어 '북한문제'가 美中간 새 갈등요인<NYT>(5/23,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사이버 전쟁이 미중 관계를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문제로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문제'가 두 나라간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음.
-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북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어 미중 간 갈등이 더욱 표면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북한 추가 제재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미국의 연방대배심이 지난 19일 사이버 범죄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5명을 정식기소한 것과 관련,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미중이 정치와 외교, 경제, 군사 부문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마. 미·일 관계

● **WP "日 집단자위권 바람직하나 신중히 접근해야"(5/19, 연합뉴스)**

-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더 유연해진 군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넘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지지한다



- 는 입장을 밝혔음.
- 이어 "지난주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은 오늘날의 국제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보다 유용한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청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를 받는 이 같은 변화는 이치에 맞는다"고 WP는 평가했음.
- WP는 그러나 "많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지난 20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던 한국과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은 이 같은 변화에 불안해한다"며 "집단지위권은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음.

바. 미·러 관계

● 국제 우주정거장, 우크라이나 갈등에 파국 맞나(5/19, 연합뉴스)

-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9일(현지시간), 1975년 시작된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젝트에서만큼은 흔들림 없는 협력을 지속해온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신 냉전'기류로 인해 ISS 프로젝트가 파국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음.
- ISS 프로젝트를 둘러싼 균열은 지난달 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NASA의 '러시아 정부 인사 접촉 금지' 메모가 공개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첨단 국방 기술 분야의 장비 등의 수출을 금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임.
- 이에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첨단 분야에서 미국 같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와 협력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긴다"며 "ISS가 퇴역하는 2020년 이후에는 미국과 국제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반격했음.

● 美, 흑해에 전함 추가 파견...러軍 우크라이나 철수는 혼선(5/21,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흑해에 군함을 파견하고 나토 회원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미사일 순양함 '벨라 걸프'(Vella Gulf)가 이번주 내 흑해에 진입한다고 밝혔음.
-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루마니아를 방문해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과 같이 충구에 의해 유럽의 국경선이 변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철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미 국방부와 나토 관계자 역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사. 중일 관계

● 일본 언론, 중국·러시아 밀착 공조에 경계심 표출(5/22,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가스 수출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양국이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공조를 과시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 정책이나 미국·유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보였음.
- 니혼케이자이신문은 22일, 중러 양국 정상인 "내정간섭과 일방적인 재제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작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비판, 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중국의 해양 확장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안보 협력기구화 공식 제안과 관련, 이는 중러가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라 했고, 산케이신문은 시 주석이 "아시아 지배의 야망"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 日외무상, 베트남·캄보디아 방문 검토...'중국 견제'(5/22,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6월 하순과 7월 초순 사이 베트남을 방문해 판 빈 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 등을 만나 동·남중국해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일본의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음.
-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대립 중인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며, 또한 양국 외무장관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의사소통 촉진 필요에도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태평양 지역 도서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베트남 방문을 전후해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아베의 "일방적 석유시추 우려" 발언에 발끈(5/23, 연합뉴스)

- 아베 일본 총리가 최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석유시추작업을 "일방적 활동"이라 말한데 대해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반발했음.
- 또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을 무시하고 옳고 그름을 혼란케 하는 것으로 진정한 목적은 남중국해 갈등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말했는데, 이는 일본과 베트남이 이번 분쟁과 관련해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경계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을 방문한 부 독담 베트남 부총리와 만나 "중국의 일방적인 석유시추 활동으로 지역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



한다"고 비판하며 양국이 해상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 중러 관계

● 시진핑-푸틴, 양국관계 격상 합의...북핵 우려 표명(5/20,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오전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외부의 내정간섭에 반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양국 간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음.
-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개입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면서 양국이 힘을 합쳐 이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양국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뒤 강압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6자회담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 모두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음.

● 중러 "인터넷은 위험" 통제 강화 고심(5/20, 연합뉴스)

- 과거 철저한 정보 통제력 덕에 각각 '죽의 장막'과 '철의 장막'이란 별명을 얻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빠른 확산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크게 우려, 자칫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러시아는 지난 2월 검찰총장에게 웹페이지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러시아 의회도 3천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블로거를 언론으로 간주해 등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온라인 공간을 통제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중국 또한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왕슈진 부주임(차관급)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적대세력들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 침투하고 중국 사회를 파괴하는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러-中 10년 끝던 가스계약 체결...양국 밀월 상징(5/21, 연합뉴스)

-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양국이 10년을 끝낸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러시아가 2018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380억 입방미터(m³)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음.
- 양국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천연가스 공급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 왔으나 중국은 러시아에 유럽 공급가보다 훨씬 싼 가격을 요구



했고 러시아는 국제시장 가격을 고수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해왔음.
- 이번 계약 체결은 근래 최고의 밀월기를 맞은 양국이 관계를 질적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평가되며 또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과의 '신 냉전' 상황을 중국과 협력강화로 돌파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김정은, 또 신발신고 병원 육아원 방문...예의없는 지도자?(5/19, 데일리NK)**
 -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이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에 위치한 군인 치료 전문병원인 대성산종합병원을 현지지도했다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는데, 김정은이 대성산종합병원에서 보양 중인 아이들을 만나며 구둣발로 방 안에 들어간 사진이 공개됨.
 - 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입원실을 둘러보며 전투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만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상처 자리도 보여주시며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몸상태는 어떤가를 물어주시었다"며 "치료도 전투로 생각하며 아픔을 이겨낸 군인들의 정신력에 의해 치료 성과가 좋다"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아파트 붕괴 이례적 공개 사과...의도는?(5/19, 미국의 소리)**
 - 북한은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지난 18일 사고 소식을 공개하고 국가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고위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공개함.
 - 한국 정보 당국은 사고가 난 이 아파트에 92 세대가 입주해 이번 사고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했으며, 완공 전이지만 미리 입주해 사는 주민들이 꽤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가 오후인 점을 감안할 때 집에 남아있던 어린이나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북한 당국이 이처럼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민들의 불만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또한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책임자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과거와 다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개방적 리더십이 반영되었으며, 사고가 난 평천 지역이 평양의 특권층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썼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 **"남북 건강 격차 심각...통일 대비 북한 취약계층 지원해야"(5/20, 미국의 소리)**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펴낸 '통일 대비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과 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남북한 주민 간 건강 격차가 심각하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등 통일대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 수명은 69.5세로 한국의 30년 전 수준이며, 한국의 평균수명은 81세로 북한보다 10살 이상 높음.
- 신체나 활동에 장애 없이 사는 건강수명도 북한은 62세, 한국은 73세로 10살 이상 차이가 남.
- 사망 원인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암이 전체 사망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심혈관 질환이 29%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한 반면, 북한은 심혈관질환이 33%로 가장 많고 특히 감염성 질환이 25%에 달했음.
- 보고서는 북한 전체인구 가운데 취약계층으로 파악되는 355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의료에 중점을 둔 의료 지원과 의료전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전염병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온 탈북자를 대상으로 전염병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의료서비스와 방역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경없는기자회 '북한 아파트 붕괴, 한국 세월호 보도와 대조'(5/20, 미국의 소리)**

- 최근 남북한에서 각각 대형 참사가 발생해 큰 인명 피해가 있었으나, 국제 언론감시단체와 탈북자들은 이를 전하는 남북한 언론매체의 환경은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함.
- 한국 언론들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현장 생중계 등을 통해 사고 소식을 국민에게 자세히 전했으며,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허술한 대응 조치와 재난구조 체계를 비판했음.
- 하지만 평양의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은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나 지난 18일야야 처음 보도됐으며, 북한 매체들은 사고 아파트의 이름과 구체적인 지역, 인명 피해 상황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시공 감독 부실로 아파트가 붕괴됐다고만 전했음.
- 국경없는기자회의 벤자민 이스마엘 아시아 국장은 19일 남북한의 참사 관련 보도가 완전히 대조적인데, 한국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보도하는 반면 북한은 사상자 규모는 물론 사고 현장의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당국이 검열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 지방간부 출신인 미국 내 탈북 난민 정 모 씨는 북한과 자유세계의 보도는 내용과 목적 자체가 크게 다르며, 지도자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보도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게 북한 관영매체라고 말했음.
- 하지만 북한이 붕괴 소식을 알리고 이례적으로 담당자가 사과를 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으로 본다 고 덧붙임.

● **"北당국, 국가전복음모죄에 '南과 불법통화 처벌' 추가"(5/20,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올해 초 '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통화 적발 시 최고 사형까지 처



-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5가지 조항을 추가함.
- 새로 개정된 형법 제60조에는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 전화통화 ▲DVD 등 남한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마약복용과 밀매 ▲밀수로 인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탈북방조와 국가기밀 누설 등 5가지 사항이 추가됨.
 - 남한 등 외국과 통화 시 5년 이상 교화형 또는 사형, 남한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 10년 이상 교화소형, 마약복용과 밀매는 5년 이상 교화소형 등으로 처벌이 강해졌으며, 같은 현상이 밀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밀수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보임.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어 "남한과의 통화하는 주민은 도청을 통해 체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설마 남한과 통화한다고 사형까지 시키겠냐면서도 '본보기'로 할 수도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북한 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그만큼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유입 등이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통화 적발 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 **북, 핵실험장 인근 주민피해 심각(5/21, 자유아시아방송)**
- 지금까지 북한이 강행해 온 핵실험(실험)으로 인해 핵실험장 주변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소식통들은 집과 건물이 붕괴위험에 처한 마을들이 폐쇄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가중)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며 위협하던 지난달 초, 장사 목적으로 백암군을 자주 드나든다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에 핵실험을 강행한 후 주변 마을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언제 또 있을지 모를 핵실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양강도의 백암군의 한 주민은 "백암군에서도 도내, 황토, 대택 노동자구에 사는 사람들이 핵실험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지난해에는 땅이 얼어붙은 2월에 핵실험이 진행돼 당시 지하 핵폭발로 균열이 갔던 건물들이 땅이 녹는 5월에 연이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백암군 '북계임산사업소' 2작업반의 경우, 5월 초에 살림집이 붕괴되면서 집안에 있던 60대의 할머니와 손녀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함.
 - 북한은 사고가 있는 후 상도 내에 있던 '북계임산사업소' 2작업반 마을을 폐쇄하고 주민들을 모두 도내노동자구로 이주시켰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핵실험의 충격은 주변 화성군 부화리까지



그대로 전달된다"며 "그곳 주민들은 핵시험의 충격에 대비해 유리로 된 음식그릇들을 일체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소식통들은 "가장 큰 문제는 핵시험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며 "핵시험을 계속 하려면 주변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을 다 옮기든지, 핵시험 장소를 옮기든지 어떤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평양, 손전화로 아파트 붕괴 소식 확산"(5/22, 자유아시아방송)

- 평양시 평천구역의 고층 아파트가 무너진 직후 건물 잔해더미에 깔린 생존자 일부가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가족과 연락하면서 아파트 붕괴 소식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아파트가 무너진 직후 건물 잔해더미에 묻힌 생존자들이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가족과 연락하면서 사고 소식이 평양 시민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음.
- '아시아프레스'는 휴대전화를 통해 아파트 붕괴소식이 순식간에 확산했다는 말을 여러 정보협력자를 통해 들었다면서 북한 당국이 아파트 붕괴에 관한 정보의 확산을 막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음.
-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례적인 사과 및 관영매체를 통한 보도의 배경에 대해 이시마루 대표는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을 더는 감출 수 없을 만큼 빠른 정보의 확산도 북한 당국이 이번 참사를 이례적으로 공식 인정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 북, 학생들까지 동원해 물주기에 총력(5/22, 자유아시아방송)

- 보기 드문 가뭄으로 몸살을 앓는 북한이 '강냉이 영양단지(모종)' 살리기에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시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주체농법'에 따른 강냉이 영양단지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난도 높아가고 있다고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소학교 4학년부터 고등중학교 6학년에 이르는 학생들까지 모두 강냉이 영양단지 물주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아직 어린 학생들이 새벽부터 흑사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학생들은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물주기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로 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던 학생들의 수업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바뀐 것으로 보임.
- 현지 소식통들은 주민들속에서 강냉이 영양단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음.
- 양강도의 소식통도 "폐기밭을 가진 사람들은 영양단지를 안 해도 농사만 잘 짓는다"며 "강냉이 영양단지야 말로 '주체농법'이 만들어 낸 가장 잘못된 농사법"이라고 강조함.
- 강냉이 영양단지는 김일성 주석이 비료와 거름을 절약하기 위해 '주체농법'에서 내세운 농사방법인데, 소식통은 "괜히 시간과 노력만



소비하는 불필요한 농사법"이라고 비판하며 비료와 거름만 충분하면 모살이 시간이 필요 없는 직파가 훨씬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다른 여러 소식통들도 "어린 학생들이 새벽부터 동원돼 물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차마 못 봐주겠다"며 "농업간부들이 '주체농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나니 어린 학생들만 고역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함.

● 북, 가뭄에 소금만 풍년(5/23, 자유아시아방송)

- 극심한 가뭄으로 북한의 농업부문은 비상이 걸렸지만 반대로 소금 생산은 크게 늘어나 예전엔 부자들이나 먹는 것으로 알려진 정제소금도 일반주민들이 살 수 있을 만큼 값이 폭락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볼 때 소금 값이 제일 비싼 곳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양강도"라면서 "그런데 이제 양강도에서도 소금 값이 계란 한 알 값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함.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장마당에서 (북한 돈) 5백원을 불러도 일반 소금을 사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며 "소금 값이 낮은 기회를 이용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을 김장용 소금까지 미리 다 마련해두었다"고 전함.

● '영국 BBC 대북 라디오 방송 검토해야'(5/24, 미국의 소리)

- 영국의 하워드 스트링어 경은 오는 2022년까지 전 세계 시청자 및 청취자를 5억 명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BBC'의 특별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함.
- 스트링어 경은 보고서에서, `BBC'가 북한이나 에티오피아 같이 자유롭고 공정한 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를 위해 적어도 1개의 새로운 방송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그러면서 라디오 뉴스나 디지털 방식, 또는 영어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사례로 제시했음.
- `BBC'는 성명을 통해, 보고서의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청취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취사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음.

2. 북한인권

● "북 엘리트에 유엔 COI 보고서 전해야"(5/19, 자유아시아방송)

- 소냐 비셰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은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와 프리덤 라이츠 프로젝트(Freedom



Rights Project)가 공동개최한 세계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 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The Int'l Human Rights System: A Missed Opportunity?) 후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한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북한 엘리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음.

-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은 북한 사람들이 인권이나 외부세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변화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가 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또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 리협약에 서명하는 등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려는 긍정적 변화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며,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 중국 등의 나라를 통해 대화 창구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함.

● 호주 외교장관 "북한 인권법 채택 위해 노력할 것"(5/22, 연합뉴스)

-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22일 시드니에서 열린 북한인권주간 행사 참석 차 호주를 찾은 탈북자 두 명을 만난 자리에서 호주 의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 채택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시드니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시드니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북한 선교위원회 측이 전해, 결과가 주목됨.
- 비숍 장관은 시드니 서부 스트라스필드 시청에서 열린 탈북자 간담회 자리에 참석, 탈북자 안명철 씨의 호주 내 북한 인권법 채택 요청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함.
- 또한 비숍 장관은 "현재 호주 정부는 2018년 유엔인권위원회 의장국 피선을 목표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나서 "여러분의 지원으로 의장국에 선출된다면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을 위해 호주 정부가 직접 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음.

● "전 독일대사, 북 인권 개입 못해 사과"(5/22, 자유아시아방송)

- 재독한인인권옹호협회는 이달 초부터 베를린 장벽박물관에서 '고문'을 주제로 한 북한인권 유린 그림과 동영상 45점을 전시 중으로, 독일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음.
- 협회의 괴켈 연속 회장은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전시회가 베를린 뿐 아니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사회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말했으며, 박물관 측이 전시품 작품 설명 등을 다른 외국어로 번역해 7월말 전시회가 끝난 후 상설전시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함.
- 괴켈 회장은 독일인들이 이와 같은 참혹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매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주한 독일 대사를 역임한 미하엘 가이어(Michael Geier) 독한협회 총재는 지난달 30일 개막식 축사에서 과거 독일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했음.



- 독일 베를린의 북한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Nicolai Sprekels) 공동대표는 독일 정부가 과거 10여 년간 문화적 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이제 북한 인권 책임자 처벌 문제 등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음.

● **노르웨이 첫 북한 인권행사 성료(5/23, 자유아시아방송)**

- 노르웨이 정책연구소 시비타(Civit)가 베르겐과 오슬로에서 22, 23 일 개최한 북한인권 행사가 현지 언론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침.
- 이 단체의 에이릭 로케(Eirik Lokke) 씨는 학생, 기업인, 정치인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며 북한인권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3. 탈북자

- 특이 동향 없음.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日 "26~28일 북한과 국장급 회담 개최"(5/19,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오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개최한다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밝힘.
- 교도통신은 이번 협의의 의제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될 전망이며, 일본은 자국민 납북 피해자 안부에 대한 재조사 실시 합의 등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음.

● **일 인권단체 "대북송금 완전 금지해야"(5/21, 자유아시아방송)**

- 오는 26일 개최되는 일본과 북한의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일본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인권단체들이 우려하고 나섰다.
-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등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 의 약속을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강화와 같은 대북 강경 노선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음.
-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21일 탄원서가 아베 신조 총리, 스가 요시히데 내각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 등 네 명에게 최근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 탄원서는 일본 정부가 17명의 납북자 이외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실종자' 860명에 대한 조사를 북한에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오는 26일부터 시작된 국장급 회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음.
 - 가토 대표는 현재 정부에 신고할 경우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이것마저도 막아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이 일본인 실종자의 소재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납북 일본인과 함께 특정실종자도 쉽게 돌려보낼 수 있고 주장함.
- **백관수 제헌의원 등 199명 6·25납북자로 추가 인정(5/23, 연합뉴스)**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1일 13차 회의를 열고 독립운동가이자 제헌의원인 백관수 선생과 2대 원세훈 의원 등 119명을 6·25납북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23일 밝힘.
 - 1919년 2·8 독립선언서 발표를 주도하다 투옥됐던 백 선생은 일본 강점기 언론인과 교육자로 활동하다가 광복 후 제헌의원이 됐으나 1950년 7월께 납북되었음.
 -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6·25 납북자는 모두 3천24명이 됨.
 - 한편 위원회는 6·25 납북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과 국민 화합 차원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관련 서울시 은평뉴타운 공익부지에 기념관,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 경기평화센터 부지에 추모탑을 각각 건립할 계획이며, 기념관과 추모탑 건설에는 토지 매입비와 건설비 등 450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 **귀국 일본인 납북자, 납치 문제 해결 촉구(5/23, 미국의 소리)**
- 지난 1970년대 납북됐다 일본에 귀국한 하스이케 카오루 씨와 유키코 씨 부부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인 납북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음.
 - 부부는 납치 문제가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현재 북한과 일본간의 새로운 움직임들이 납치 문제의 전면적 해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하스이케 씨 부부는 지난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른 일본인 납북자 3 명과 함께 귀국했으며, 북한에서 태어난 하스이케 씨



의 아들과 딸은 2년 뒤 일시 방문 형식으로 일본에 간 뒤 부모와 같이 살고 있음.

- "北, 日납치자 해결하면 대북제재 단계적 해제"(5/23, 데일리NK)
 -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22일 2차 북·일 정상회담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힘.
 - 후루야 담당상은 "북한이 문제(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근거한 조치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음.
 - 후루야 담당상은 "납치자의 존재를 은폐하는 것으로 납치 문제의 종식을 피한다면 북·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북한이 역사적, 대국적 견지에서 북·일 간 평양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납치자 전원을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음.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이탈리아, 대북인도지원 이달 종료(5/19, 자유아시아방송)
 - 이탈리아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Development Cooperation Office of Italy)은 강원도의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시한이 이달로 끝난다고 19일 밝힘.
 -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5월 말부터 1년 계획으로 20만 유로, 즉 미화 약 27만 5천 달러를 유엔아동기금(UNICEF)에 기부하여 이를 통해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가정에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등 강원도 지역 임산부와 신생아를 지원했음.
 - 이탈리아 정부의 지원은 안변, 문산, 원산, 고산군 등 강원도 6개 군에 집중됐으며, 이 지역의 2만 4천여 임산부와 2만 2천여 신생아들



이 이탈리아 정부의 도움을 받았음.

- 유엔아동기금은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 영양강화우유와 영양보충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모와 수유모들에게는 철분과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한 미량영양소 보조제를 지원하고 있음.
- 이탈리아 개발협력청 관계자는 이탈리아 정부의 북한지원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식량지원(Bilateral program on food aid)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IFRC "북한, 아파트 붕괴 구호 요청 안해"(5/19,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당국이 평양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피해 사실을 전해오거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 기구는 북한 당국이 아파트 붕괴에 따른 대참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北, 드레스덴 선언 후 南 인도적 지원품 잇달아 거부(5/21, 연합뉴스)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정부가 반출을 승인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 정부의 대북지원 기조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21일 통일부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에 따르면 한 대북지원단체는 지난달 초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고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려 했지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거부 입장을 통보해 아직 준비한 물품을 보내지 못하고 있음.
- 북측 민화협은 이 단체 보낸 서신에서 "지원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라며 "사전협의 없이 보내는 물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 비슷한 시기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또다른 대북지원단체도 같은 이유로 이유식 등 지원품을 북측에 보내지 못했음.
- 북측 민화협은 북민협에 보낸 서신에서 "귀 협의회 소속 일부 단체들이 우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시시껄렁한 물자들을 계속 들여보내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전 협의 없는 물품은 받지 않고 전부 회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이 갑작스럽게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인도적 지원을 잇달아 거부한 배경에는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반감이 짙게 깔렸다는 것이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석임.
- 실제로 북측 민화협은 북민협에 보낸 서신에서 "남측 당국이 '고통'이니 '배고픔'이니 '취약계층' 지원이니 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했다"며 드레스덴 선언 문구를 인용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음.
- 북민협의 한 관계자는 "북측과 사전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남북 간 사전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지원 보류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음.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스웨덴, 올 570만 달러 대북지원(5/21, 미국의 소리)

- 스웨덴 정부가 올해 대북 사업에 3천750만 크로나, 미화 5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식량농업기구를 통한 대북 추가 지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올해 대북 사업에 3천 750만 크로나, 미화 57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말했으며, 이 같은 액수는 지난 해 508만 달러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규모임.
- 웬글린 대변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5월 현재 24%인 137만 달러가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올해 초 프랑스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에 2백만 크로나,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단체는 이 자금으로 함경남도 소흥시에서 식수 공급과 위생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음.
- 또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의 황해남도 의료시설 개선 사업에 60만 달러, 북한 내 장애인을 돕고 있는 국제 구호단체 핸드캡 인터내셔널에 46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음.
- 웬글린 대변인은 나머지 430만 달러도 앞으로 대북 구호단체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중 34%인 151만 달러는 이미 국제적십자사(IFRC)를 포함한 스웨덴적십자사에 배정됐음.
- 또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과 보건,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함경남도 공공시설에서 식수위생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 구호단체 '세이프 더 칠드런'에 각각 91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이밖에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가 진행 중인 황해북도 식수위생 사업에 68만 달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3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임.
- 웬글린 대변인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이 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서도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FAO에 제공될 자금은 앞서 책정된 570만 달러와는 별도로이며,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퇴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유럽연합, 올해 대북 사업에 675만 유로 지원(5/22, 미국의 소리)

- 유럽연합 원조개발협력청은 유럽연합이 올해 대북 식량안보 사업에 675만 유로, 미화 926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협력청은 대북 지원단체들이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스웨덴 적십자사에 대한 30만 유로를 포함해 올해 5월 현재 32만 유로, 44만 달러를 대북 사업에 지원했는데, 이는 2014년에 지원할 계획인 926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은 자금임.
-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올 5월 현재 대북 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 WFP 사무총장 "北변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5/22,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한 직후 방한한 어서린 커즌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22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북시 북한 지도부의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연합뉴스 등의 질문에 "그들(북한)은 우리가 한 모든 제안을 신중히 숙고했다"고 밝혔다.
- 또한 "기부국들로 하여금 추가 (대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커즌 사무총장은 지난 19~21일 북한을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리수용 외무상 등을 만났으며 베이징을 거쳐 이날 한국에 도착했다.
- 커즌 사무총장은 WFP가 북한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태로울 정도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며 "추가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의 활동 역량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 커즌 사무총장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와 북한의 최근 식량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남북 주민의 통합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함.

● WFP 사무총장 "대북지원 재원부족 심각...20%만 조달"(5/23, 연합뉴스)

- 어서린 커즌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 영양지원 사업이 심각한 재원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추가 지원이 없다면 영양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속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활동 상황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 전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그는 "학교 급식을 통해 도움을 받는 60만명을 지원하지 못하게 됐고 학생들에게 줄 영양강화 비스킷을 만드는 공장 5곳이 폐쇄됐다"고 전했다.
- 그는 북한 지도부와 나눈 이야기를 묻는 질문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WFP의 프로그램이 북한에 상당한 혜택(significant benefit)이 됐다



고 언급했다"고 답했음.

- 이날 동석한 켈로 오시다리 WFP 아시아지역본부장은 북한 영유아들의 영양 실태에 대해 "다소 개선됐다고 보이지만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30%가량의 영유아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 **카리타스, 북에 태양열온실 37채 건설(5/2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구호단체 카리타스의 북한 온실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는 의료관련 시설도 추가로 서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카리타스는 평양시를 비롯해 평안북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그리고 함경남북도에 길이 40미터, 폭 8미터 크기의 온실을 짓고 각종 채소와 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음.
- 이곳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북한의 결핵 및 간염환자 치료시설에 공급하고 있음.
-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볼프강 게스트너 대북사업 담당관은, 지난해 평안북도 운산군에 온실을 세운지 1년도 채 안 돼 벌써 3번씩이나 채소를 수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힘.
- 또한 온실과 함께 카리타스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결핵환자 영양시설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음.
- 게스트너 담당관은 이번에 북한의 강원도 문천시와 천내군을 방문해 그곳에서 한창 진행중인 결핵환자 영양시설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와 함께 마무리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함.
- 이와 함께 게스트너 담당관은 현재 진행중인 온실 건설사업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염병 관련 실험실을 서울 계획이라며, 건설자금 확보를 위한 모금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 **프랑스 구호단체, 북한 노인에 53만 달러 지원(5/24, 미국의 소리)**

-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38만 5천 유로, 미화 53만 달러를 투입해 지난 3월부터 북한 양로원 거주 노인 7천500여 명을 위한 새로운 식량안보 사업을 시작했음.
- 앤 트레옹다트 (Anne Trehondart) 대변인은 이 사업은 프랑스 외 무부로부터 지원받은 38만 5천 유로, 미화 53만 달러로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북한 내 양로원 24곳의 노인들에게 식량 지원을 통해 노인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조선연로자보호연맹과 협력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노인들이 직접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해 먹고, 소득을 창출하며, 건강도 증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 단체는 또 조선연로자보호연맹 관계자들에게 식품위생과 영양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음.
- 트레옹다트 대변인은 북한 노인의 3퍼센트 정도가 가족도 없이 정



부보조금과 불확실한 식량 배급에 의존해 살고 있으며, 특히 외딴 지역 노인들의 경우 식량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영양결핍 등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함.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 원조 개발협력청(EuropeAid Cooperation Office)으로부터 지원받은 67만 유로, 91만 달러로 지난 해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북한 노인을 위한 식량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음.
- 또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로부터 지원받은 45만 유로, 61만 달러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황해남도 소흥사에서 식수 공급과 위생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임.
- 또 지난달부터는 소흥시의 수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어, 영국의 구호단체인 옥스팜 홍콩 지부가 기부한 15만 3천 유로, 21만 달러로 주요 지역에 공중 화장실 7개와 학교 화장실 32개를 건설하는 수질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8. 북한동향

-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관련 '광주항쟁의 넋을 이어 대중적인 반정부 항쟁에 총궐기해 나설 때만이 박○○ 패당의 악정을 짓부실 수 있으며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도 실현될 수 있다'고 '反정부 투쟁' 선동(5.18,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대중적 항쟁의 불길을 지펴 올려야 한다)
 - * '반미투쟁으로 부르는 광주의 넋·미국은 남조선 인민들의 벗이 아니라 침략자 - 약탈자 - 살인자이다' 題下로도 '반정부 및 반미·반파쇼 투쟁' 선동(5.18, 평양방송)
-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北 체제 및 인권·자유' 언급은 "우리(北)를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헤어나보려는 불순한 목적"이라고 비난 지속(5.18,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의 무덤에서 벌어진 도발광대극)
 - * '박○○ 일당의 흡수통일 야망과 전면적인 체제대결을 선포한 이상 우리(北)가 실질적인 보복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위협(5.18, 평양방송/천하무도 한 박○○ 불망종들의 극단의 도발)
- 【「조평통」 서기국, 세월호 참사 진상고발장(5.19)】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에 대해 '민심과 여론을



우롱하는 노숙을 부리여도 집단학살의 반인륜적 대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5.19, 중앙통신/박OO패당의 천인공노할 집단적 대학살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 北, 5월 20일 평양 아파트 붕괴 관련 '北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위로 전문을 보내왔다'고 보도(5.20, 중앙통신)
 - 전문은 지난 13일 평양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지적하였음.
- * 日 아베 총리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개정 등 관련 절차 추진에 대해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며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은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재앙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주장(5.20, 중앙통신 논평/일본은 어디까지 가려는가)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추진 방침(5.15, 총리 기자회견 등)'에 "흉악한 야망, 유엔헌장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의 견지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연일 비난(5.21, 평양방송/군국주의 야망에 들뜬 자들의 무분별한 광증)
- 최근 집회와 시위들에서의 '박OO정권 퇴진' 등 주장 관련 '박OO 정권이야말로 재앙거리 정권, 다시는 박OO패당과 새누리당의 선거공약을 믿어서는 안 되며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6·4 지방선거에 개입하여 '박OO정권 퇴진과 反새누리당 투쟁' 선동(5.22, 평양방송/두 번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
- 세월호 참사 관련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의 집중적 반영인 동시에 박OO패당의 총체적 무능과 반인민적 정치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폭로'라며 '민심을 등진 자들은 인민의 버림을 받기 마련'이라고 연일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5.22, 중앙통신·노동신문/대참사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63호(5.22)】 대법원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5.16) 관련 '간첩사건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산증거'라며 '南 각계층은 유신독재정권이 저지른 악행과 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5.22, 중앙통신·중앙방송)